

(19) EU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 시사점

■ 연구책임자

강유덕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input type="checkbox"/> 정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EU의 FTA 정책 속에 나타난 글로벌 규범제정 및 가치사슬 활용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FTA 정책 수립 및 대EU 경제 외교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바, 정책연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한·EU FTA 이후 EU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대형 FTA를 추진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도 FTA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 EU는 ‘글로벌 유럽’(2006년 발표)을 추진한 이래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FTA를 발효 또는 타결하였으며, 중장기 통상전략(2010~2015년)에 의거 FTA의 외연확대를 시도 중임.
 - ※ EU의 기체결 FTA 대상국(발효연도): 멕시코(2000년), 칠레(2003년), 남아공(2004년), 한국(2011년)
 - ※ 서명 또는 타결: 싱가포르(2014년 10월 서명), 캐나다(2014년 9월 완료), 베트남(2015년 8월)
 - ※ 협상 중(일부 국가만 열거): 미국(TTIP),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 ※ EU는 현재 176개 국가(2013년 기준)에 적용 중인 GSP를 70여 개 국가로 축소하고, 나머지 국가와는 FTA 형식으로 전환할 예정
- 특히 2013년부터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대형 FTA를 추진하면서 국내의 저성장 여건을 만회하고자 해외시장 개척, 글로벌 통상규범, 기준 및 표준 설립 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 EU·미국 FTA: 2013년 7월 협상시작, 10차 협상 완료(2015년 10월 현재)
 - ※ EU·일본 FTA: 2013년 3월 협상시작, 12차 협상 완료(2015년 10월 현재)
- 지난 수년간 EU의 FTA 정책은 시장접근 외에도 글로벌 규범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 자국기업에 유리한 시장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0년을 전후하여 EU의 FTA 정책은 과거의 안보·외교적 동기가 현저히 약화된 가운데 실익추구형으로 재편되었으며, 협상 대상국별 맞춤형 FTA 전략이 추구되어왔음.
- EU가 관세율이 낮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FTA를 추구하는 목적은 시장 접근 개선 외에도 글로벌 통상규범, 기준 및 표준 설립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 ※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자체적인 성장동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 점은 EU가 보다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 됨.
 - ※ 세계 강제기준이 대부분 유럽에서 출발한 점을 감안할 때 유럽은 글로벌 기준 및 표준선점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며,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함.
- 한편 유럽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FTA 협상 시 전략적·규범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재권, 노동기준 준수,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EU의 신통상전략(2015~2020년)에서 EU는 통상정책 추진에 있어 고용 및 성장 간의 연계성, 해외서비스 시장진출 및 투자확대, 글로벌 가치사슬(GVC) 활용의 극대화 등을 목표로 정하고, 매우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
- 경기침체 및 저성장, 이에 따른 국내 고실업문제는 EU가 통상정책의 목표를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고용 및 성장촉진에 맞추는 배경이 됨.
- 또한 투자가 EU 통상정책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BIT를 통합할 수 있는 공동투자정책이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TTIP 협상이 대표적인 예임.
- 신통상전략(2015년 10월 발표)에서는 고용확대 및 성장촉진에 초점을 둔 기존의 통상정책을 재확인하고, 시장접근(market access)뿐만 아니라 해외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확대, GVC의 적극적 활용, 중소기업의 지원과 같은 차세대 목표에 초점을 둘 것임을 천명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본 연구는 **EU의 FTA 전략 및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3~5년 후 **EU의 FTA 네트워크를 미리 예상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전략 및 포괄적 FTA 운영전략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 한·EU FTA를 기반(template)으로 하여 EU는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일본과의 FTA 협상도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실시
 - EU는 자국 위주의 FTA 네트워크 구성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바, 중기적 차원에서 형성될 EU를 포함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예상함으로써 TPP, RCEP 등 광역 FTA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둘째, EU는 역내에서는 **규제의 상호인정**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역외에서는 **규범·표준을 선점**한 후 통상정책을 통해 이에 대한 수용을 상대국에 강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
 - EU는 역내 회원국간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규제의 상호인정과 조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바, 연구를 위한 풍부한 사례가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FTA 연구와 차별화하여 EU가 FTA를 통해 추구해온 규범 제정(rule-making) 전략을 연구하며, 특히 TTIP 협상의 전개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Post FTA 통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TPP, TTIP, RCEP 등 대형 FTA 시대를 맞아 선진규제의 선제적인 수용 또한 요구될 수 있는바, 전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셋째, 통상정책의 주안점이 점차 전통적인 시장접근에서 **차세대 목표(예: 기업의 GVC 확대 및 해외서비스 시장 진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연구
 - 기존의 FTA가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점차 확대되는 GVC 체제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기술, 고가치 산업에 대한 특화를 비롯하여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함.

- EU의 신통상전략(2015~2020년)에서는 무역과 성장·고용의 연계성, 해외투자 확대, GVC 활용 및 중소기업 지원 등 10년 전에 비해 한층 세분화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부의 신통상전략(2013년 10월)과 유사한 측면이 많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의 신통상전략의 수립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필요성 파악-정책수립-정책이행-성과파악’의 절차를 분석하고, 차세대 목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연구자(연도): 강유덕 외(2011) - 연구목적: 한·EU FTA 발효 이후 보다 적극적인 대EU 진출을 위한 전략 및 FTA 활용방안을 제시	- 무역, 투자 통계분석 - 계량분석 - 설문조사 - 문헌연구	- 한·EU 간의 무역, 투자통계 분석 -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한·EU 간 무역확대 가능성을 분석하고 현시비교우위(RCA)를 측정 - 유럽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한·EU FTA의 활용 가능성 및 대EU 사업 애로사항 조사 - EU의 비관세장벽 조사 및 대응방안 제시
	2	- 과제명: 한·EU FTA 수출 확대 효과분석과 시사점 - 연구자(연도): 명진호(2012) - 연구목적: 한·EU FTA가 실제로 품목별 대EU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는지를 무역통계를 통해 확인	- 무역통계 분석 - 특혜관세 변화에 따른 제품군 분류	- 한·EU FTA 발효 이후 품목별 대EU 수출을 관세인하 수준 별로 분류하여 수출증가 여부를 비교 - 관세인하폭이 큰 품목에서는 수출증가가 나타났음을 입증
	3	- 과제명: Reducing Transatlantic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 연구자(연도): Joseph Francois(2013) - 연구목적: 미국과 EU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량적 분석	- 비관세 장벽 파악 및 정량적 추정 - 통계분석	- 미국과 EU의 산업분야별 비관세 장벽을 파악하고 무역저해효과를 관세상당치로 전환하여 추정 - 미국과 EU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 외에도 비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효과가 클 것임을 역설

본 연구	- 과제명: EU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 시사점 - 연구자(연도): 강유덕 외(2016) - 연구목적: EU의 기체결 FTA 및 협상 중인 대형 FTA의 내용 및 추이를 점검함으로써 한·EU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FTA 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무역투자 통계분석 - 문헌연구 - 면담	- EU의 기체결 FTA 및 협상 중인 FTA의 내용 및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분석 - EU의 FTA 추진전략의 핵심동기 중 하나인 규범제정에 대한 EU 측의 입장을 문헌연구, 면담 등을 통해 파악 - EU의 통상정책 수립체계 및 정책 목표, 이행평가체제에 대한 분석
------	---	-------------------------------	---

■ 주요 연구내용

□ EU의 FTA 전략과 EU가 추진해온 주요국과의 FTA 이행결과 및 협상추이 분석

- 2015년 이후 EU의 FTA 중장기 FTA 전략 분석
- EU의 기체결 FTA 분석: 싱가포르, 캐나다
- 현재 협상 중인 FTA 분석: 미국, 일본

□ 한·EU FTA와 주요국 FTA를 통해 나타난 EU의 규범제정(rule-making) 전략을 연구

- 규범제정에 있어서 EU의 파급력에 대한 연구(유럽의 분야별 기준 및 표준화 기구 분석, 유럽 단일시장 내에 규제수렴 방법론 파악)
- EU 집행위원회와 EU의 산업협회, 주요국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면담을 통해 글로벌 규범제정에 대한 EU의 입장을 파악

□ EU의 신통상정책(2015~2020년) 및 세부 목표에 대한 분석

- 새롭게 도입된 EU의 투자정책 분석(체계, 효과, 전망)
- FTA 추진체계 및 평가의 방법론 분석
- 해외서비스 시장 진출전략 분석
- FTA를 통한 GVC 활용 지원전략 분석
-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목차 (잠정)

제1장. 서론

제2장. EU의 FTA 추진전략

1. 최근 EU의 FTA 추진전략
2. 기체결 FTA의 비교

3. EU의 대형 FTA 추진전략 및 성과

4.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3장. EU의 FTA에 나타난 성장과 고용촉진 전략

1. 대내외 경제여건과 통상정책 간의 관계

2. EU의 통상정책 수립절차

3. 통상정책 이행 및 평가에 대한 방법론

4.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4장. FTA에 나타난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1. 글로벌 규범경쟁의 현주소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TTIP의 예

4.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EU 경제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2. 해외 서비스시장 진출전략(GVC 지원전략 1)

3. FTA간의 상호교환성 증진(GVC 지원전략 2)

4.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EU 기관 및 주요 싱크탱크의 발간물 분석

○ 규범제정, 규제수렴에 대한 연구논문 분석

○ FTA 추진경과에 대한 문헌 습득 및 분석

통계분석

- 한·EU 간의 무역, 투자통계 분석
- 필요한 경우 중력모델(2011년 연구활용)을 개량한 계량분석 활용

해외전문가 면담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6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6년 6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6년 9월

- 국외 출장

- 연구 수행기간 중 벨기에 브뤼셀 1회(2인), 프랑스 파리 1회(2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1회(1인) 계획
- 목적 및 필요성: EU 기관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 현지 협회 관계자와의 면담 및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현지 방문
- 주요활동: 해외 현지조사 및 전문가 면담 실시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연 3회 정도 실시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초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4	13	신뢰외교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한국의 대EU 통상정책과 대형 FTA 대응정책 수립에 기여
- EU 등 주요 선진국의 자국규제 수용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계의 준비여력 확충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FTA 추진과 규범제정을 관련지어 연구한 국내연구는 매우 적은바, 국내 통상관련 학술연구에 기여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6.02.01.	종료일	2016.11.30.
------	---------	------	-------	-----	-------------	-----	-------------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4,0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 100×10월=1,000 ◦ 통신요금 100×10월=1,000	2,000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 2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9×1,000부=9,0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200×10월=2,000	15,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연구기자재비 100×10월=1,0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 리스 100×10월=1,000	2,000
5. 여비	◦ 국내여비 (100×2인)×10회=2,000 ◦ 국외여비 - 벨기에(브뤼셀) ▪ 항공료(Economy) (2,900×2인)×1회=5,800 ▪ 숙박비(나급지, 1호 라목) [(\$160×5박×1인)×1회]×1.14=900 ▪ 숙박비(나급지, 2호 가목) [(\$137×5박×1인)×1회]×1.14=800 ▪ 일·식비 등(나급지, 1호 라목) [(\$113×7일×1인)×1회]×1.14+100=1,000 ▪ 일·식비 등(나급지, 2호 가목) [(\$89×7일×1인)×1회]×1.14+100=800 - 프랑스(파리) ▪ 항공료(Economy) (2,650×2인)×1회=5,300 ▪ 숙박비(가급지, 1호 라목) [(\$223×5박×1인)×1회]×1.14=1,250	30,850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비(가급지, 2호 가목) $[(\\$176 \times 5 \text{박} \times 1 \text{인}) \times 1 \text{회}] \times 1.14 = 1,000$ ▪ 일·식비 등(가급지, 1호 라목) $[(\\$142 \times 7 \text{일} \times 1 \text{인}) \times 1 \text{회}] \times 1.14 + 100 = 1,250$ ▪ 일·식비 등(가급지, 2호 가목) $[(\\$111 \times 7 \text{일} \times 1 \text{인}) \times 1 \text{회}] \times 1.14 + 100 = 1,000$ - 독일(프랑크푸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Economy) $(2,650 \times 2 \text{인}) \times 1 \text{회} = 5,300$ ▪ 숙박비(나급지, 1호 라목) $[(\\$160 \times 5 \text{박} \times 1 \text{인}) \times 1 \text{회}] \times 1.14 = 900$ ▪ 숙박비(나급지, 2호 가목) $[(\\$137 \times 5 \text{박} \times 1 \text{인}) \times 1 \text{회}] \times 1.14 = 800$ ▪ 일·식비 등(나급지, 1호 라목) $[(\\$113 \times 7 \text{일} \times 1 \text{인}) \times 1 \text{회}] \times 1.14 + 100 = 1,000$ ▪ 일·식비 등(나급지, 2호 가목) $[(\\$89 \times 7 \text{일} \times 1 \text{인}) \times 1 \text{회}] \times 1.14 + 100 = 800$ ◦ 초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외 관련) $(50 \times 3 \text{인}) \times 3 \text{회} = 450$ ◦ 시내출장 $50 \times 10 \text{월} = 500$ 	
6. 연구정보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자료구입비 $500 \times 10 \text{월} = 5,000$ ◦ 특근매식비 $(6 \times 17 \text{회}) \times 10 \text{월} = 1,000$ 	6,000
7. 전문가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참석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 $(300 \times 1 \text{인}) \times 3 \text{회} = 9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 $(100 \times 3 \text{인}) \times 3 \text{회} = 900$ ◦ 연구 및 회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비(연구심의회외) $(250 \times 3 \text{인}) \times 3 \text{회} = 2,250$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료 $500 \times 1 \text{회} = 500$ - 검독료 $1,000 \times 1 \text{회} = 1,000$ 	5,550
8.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의비 $(30 \times 5 \text{인}) \times 26 \text{회} = 3,900$ - 연구추진회의비 $(30 \times 5 \text{인}) \times 4 \text{회} \times 10 \text{월} = 6,000$ - 연구심의회비 $(30 \times 10 \text{인}) \times 3 \text{회} = 900$ ◦ 학술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 \times 20 \text{인}) \times 3 \text{회} = 1,800$ 	12,600
9.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